



선행되어야 하고 협정발효를 위해서는 최소한 10 개국 이상이 협정에 서명하여야 하는데 현재 일본, 싱가포르, 라오스 3개국만이 협정에 가입한 상태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동협정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절대량이 통과하는 동남아 해상의 안전 확보에 기여와 협정을 통한 가입국간의 해적/해상강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여 외교통상부에 적극

찬성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동협정에 의해 각국은 관리이사회 (Governing Council)에 대표 1인과 연락관 (Focal Point) 1인을 두게 되어 있는 바 해양경찰청은 우리나라 해상치안업무 전담기관으로서, 그리고 해적피해 발생시 동남아 해상치안기관과 직접 협력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연락관(Focal Point)는 반드시 해양경찰청에서 맡아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대산지방해양청,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장관상 표창 및 포상금 1,300만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한호)은 정부 전체 23개 책임운영기관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30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 회계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기관장이 기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23개 기관이 있다.

금번 표창은 2004년도 1년간 기관운영실적을 제3의 기관이 평가한 것으로 대산청은 전체 23개 기관중 4위를 하였으며, 2001년 1월1일자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2번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대산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유는 새로운 양식개발 등 새로운 아이디어개발, 대산항건설 오탁방지막 개선 등 행정효율화 추구, 선원민원이동실 운영 등 대국민서비스 향상으로 책임운영기관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것이 높게 평가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산청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취지에 맞게 책임효율경영이라는 운영방침을 정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책임운영기관 도입·정착에 노력해왔다. 특히, 연간 30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는 대산항 건설, 고객위주의 해운서비스 공급, 연중무휴 항만서비스, 자율관리사업 등 해양수산 고객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대산청은 우수기관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의 문턱을 낮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위한 행정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책임운영기관 선두 주자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 책임운영 경영술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특히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산항을 조기 완공하여 항만세입을 증가시켜 책임경영효율기반을 공고히 구축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